

# 부채 급증에 '빈곤 늪' 빠진 농가

### 농경연, 18~22년 농가부채 3564만원...최근 5년 새 34.4% 증가 작황부진·영농여건 악화 등 영향...영농특성 반영 정책 개선 시급

최근 국내 농가들의 부채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상악화로 인한 작황부진 및 최근 영농여건 악화로 인해 향후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 의향이 축소됐고, 영농 자금 조달 시 대출 조건과 고금리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내 농가들의 안정적인 농업소득 증대와 자금 접근성 개선 등 영농 활동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한 '농가 부채와 금융 조달 현황, 진단과 과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농가들의 부채 평균 규모는 3564만원으로, 이전 조사(2013년-2017년) 통계인 2711만원 대비 853만원 증가했다.

이는 5년마다 국내 농가들의 소득 및 부채 등을 조사하는 '농가경제조사'를 분석한 결과로, 농가들의 부채 규모는 지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오랜 기간 2651만원-2777만원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5년새 증가폭이 크게 늘어 증가율이 많게는 34.4%까지 높아졌다.

특히 전업농보다 1종 겸업농, 축산 및 화훼 농

가, 경영주가 젊은 농가 등의 부채 규모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의 '농가 특성별 부채 규모 추이'를 보면 전업농의 경우 지난 2018년 부채규모가 평균 2573만원에서 지난 2022년 2735만원으로 6.3% 증가했다.

반면, 1종 겸업농의 부채규모 상승률은 전업농 대비 4배 이상이었다. 1종 겸업농의 경우 지난 2018년 3973만원에서 2022년 4991만원으로 25.6% 폭등했다.

이 같은 농가 부채규모 증가세 등에 대해 KREI가 지난 1월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915명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전반적인 영농 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 농업 종사자들의 자체 자본 조달 능력이 악화됐고,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경영비(생산비)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설문조사 응답자 중 60% 이상이 지난해 전년 대비 농업 수익은 감소했고, 생산비는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농업 매출액이 전년 대비 '줄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2.7%였고, 생산비가 '늘었다'고 답한 비율은 66.8%였다. 반면, 매출액 및 생산비

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한 농업인은 각각 25.7%와 16.9%에 그쳤다.

이어진 복수 응답 조사에서는 경영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기상 여건 등으로 수확량이 적었다'가 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농기계, 자재비 등의 가격이 올랐다'(70.4%), '임차료나 인건비가 올랐다'(66.1%), '병충해 및 자연재해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들었다'(57.9%)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 경영비가 증가한 원인으로 '농약·비료·종자 등 투입재 가격이 올랐다'(91.0%), '농기계, 자재비 등의 가격이 올랐다'(70.4%), '임차료나 인건비가 올랐다'(66.1%) 순으로 많았다.

KREI는 이같은 영농 여건의 악화 및 경제적 제약이 소극적인 투자로 이어진 것으로 진단했다.

지난 3년간 농업 부문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6%는 '3000만원 미만', 19.8%는 '투자를 하지 않았다'를 선택했지만, '5000만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답한 비율은 19.3%에 그쳤다.

KREI 관계자는 "농가소득으로 농가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가들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게 될 시 중국에는 '채무적 파산 상태'에 이르러 장기적인 농업 생산성 향상과 혁신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며 "농업 소득을 안정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농업인들의 금융 접근성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윤영 기자 zyang@kwangju.co.kr

##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 정기총회...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도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지난 23일 광주주부모임대강당에서 (사)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지회장 윤정숙)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해 사업결산보고와 올해 주요활동 계획 승인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날 지난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조직 활동을 전개한 우수분회에 대한 시상을 통해 남광주농협·서광주농협 분회가 농협본부장 표창장을, 송정농협 분회가 시지회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윤정숙 지회장은 "2년차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의 장을 자주 마련하겠다"며 "우리 농산물 소비문화 정착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현호 본부장은 "지역사회 내 여성권익을 신장



고향시지회 정기총회 모습.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산림조합중앙회, 나무시장 개장

유실수·조경수 등 11만 그루

산림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나무판매 전시장(나무시장·광주시 광산구 복문대로 663번지)이 올해도 문을 열었다. 나무시장은 1만4080㎡ 규모의 온실에 200여 종 11만 그루의 유실수, 조경수,

화초류 등을 만나볼 수 있는 곳으로 지난 23일 운영에 들어갔다.

나무시장은 광주전남지역본부 포함해 전국 15개 지역 산림조합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나무시장에서는 가정에서 심기 좋은 매실, 대추, 감, 모과, 살구, 자두, 앵두나무 등 유실수와 단

풍나무, 금(금)목서, 주목, 반송, 산다화, 명자나무, 회양목 등 관상수, 장미, 철쭉 목련, 라일락, 홍도화 등의 꽃나무를 만나볼 수 있다.

산림조합 나무 전시판매장에서는 조합원 등이 생산한 우수한 품질의 목목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접 판매하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나무를 키우기 위한 각종 임업, 조경자재 및 친환경 비료도 함께 구입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산물관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 '농사만사'

## 꼬꼬야, 평생 같이 살자

### 치유와 힐링 치유농업 주목...가축 기르고 텃밭 일구며 심신안정

치가에 두 해를 넘게 키우고 있는 닭이 두 마리 있다. '꼬꼬야'로 불린다. 시장에서 구매한 병아리가 자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인데 가족으로 길렀는데 '애완 닭'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을 듯하다. 장모는 이 아이들을 정성을 다해 돌봐 왔는데 사람이 좋아하고, 이젠 애들과 대화를 나누며 적적함을 달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닭이 오래 살아 있는 것이 신기하고 사람의 말동무도 될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



애완 닭 '꼬꼬야'

치가의 이 기묘한 상황을 보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치유농업'에 대해 생각해봤다. 식물을 키우며 치유와 힐링을 추구하는 '원예치료' 정도는 잘 알려져 알고 있었지만, 위 사례를 보며 보다 큰 의미의 치유농업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를 이용해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범위는 채소와 꽃 등 식물뿐만 아니라 가축 기르기, 산림과 농촌문화자원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며 그 목적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의료적·사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다. 일반 농사와 가장 큰 차이점은 농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식물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농업으로 신체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 심리·정서적 영역별로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일상·업무 수행능력, 스트레스 회복력, 회복 탄력성이 증가해 삶의 질과 생활의 만족도가 향상된다고 한다.

우리에게는 치유농업이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유럽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돼 활성화되어 있다. 국내에는 1994년도 원예치료를 도입하면서 초창기의 치유농업이 시작되었고 2021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관련된 연구와 사업이 활발히 추

진되고 있다.

치유농업법에 근거해 치유농업사 2급 국가자격증 제도가 운영되고 치유농업 운영자 역량 강화 교육과정도 개설돼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치유농업정보망인 '농촌진흥청 치유농업 ON'을 통해 치유농업 기본정보, 치유농업시설(농장·마을), 치유농업 프로그램, 치유농업 콘텐츠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나의 필요와 취향에 맞는 치유농업을 선택해서 경험해 볼 수 있다.

다만, 치유농업이 부상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보단계에 있고 참여자들도 많지 않다는 점은 아쉽다. 앞으로 치유농업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치유농업을 체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와 대담한 투자가 요구된다. 또 치유산업 활성화 주체가 제각각이고 믿고 뛰어들 수의 구조도 없는 것도 문제인데 농업, 보건, 복지, 교육 등 관련 법령의 검토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다양한 시도와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치유농업이라고 해 거창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를 시행하거나 참여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나만의 애완가축을 키우거나, 소소하게 텃밭을 일구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치유농장을 찾는 것도 좋고, 봄을 맞아 지자체 등 곳곳에서 텃밭을 분양하고 있으니 한번 문을 두드려 보라.

/bigkim@kwangju.co.kr

## 농신보, 귀농·귀촌인 대상 신용 보증이용 교육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순천권역보증센터는 지난 22일 고흥귀농귀촌행복학교를 찾아 '농신보 보증이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흥군과 연계해 담보력이 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신용보증제도 ▲보증대상 자금 ▲보증 한도 ▲창업자금 이용절차 등으로 진행됐으며, 신용보증 전반에 대한 교육과 함께 보증신

청 시 유의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김은희 센터장은 "농축어업인들의 자생력 제고 및 안정적인 영농생활정착을 위해 스마트 농업 육성과 청·정년 창업에 보증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농림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에 조직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농신보는 교육을 요청하는 기관과 단체를 통해 '찾아가는 농신보 현장 보증지원 센터'와 병행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